

마술가게

숭대극회 제69회 봄 정기공연

★ 이상범 작

연출 : 이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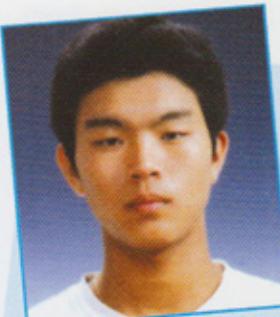
기획 : 김성은

일시 : 2005년 3월 2, 3, 4일 (PM. 6:30)

5일 (PM. 2:00, 6:00)

장소 : 숭실대학교 제 1공학관 209호

* 국회장인사



국회장
윤장한 (경제98)

안녕하십니까? 국회인 여러분, 관객 여러분!
뜨겁다 못해 자신을 망각해온 저희들의 열정이 숭대극회 역사의
한 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걱정하며 힘써주셨던 국회인 여러분들께
다시 이 글을 빌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역사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남겼던 담방울의 흩어짐으로 인해 저희들은 성장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인 여러분.

2005년은 숭대극회에 있어서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가 될 것입
니다. 극장이 허물어진지 1년여 남짓,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능성 많은 시기라는 것을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일어섰습니다. 극장이 없어진 직후 극장을 천막으로 짓고, 지금은 극회실을 개조하여
소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듭나는 저희들을, 저희 숭대극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력해준 내 사랑하나는 후배들과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숭대극회 제 69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숭실대학교 국예술 연구회 일동 -

* 연출의 변



연출
이옥재 (섬유00)

시간이 흐른다,
벌써 3학년이다.

시간이 흐른다,
벌써 25살이다.

시간이 흐른다,
공연 시작이다.

시간이 계속 흐른다.

* 작품 줄거리

깊은 밤, 인간세상을 동경하는 마네킨들이 깨어있다. 이 때 인기척이 들리고 수상한 모습의 (가)가
등장한다. 도둑이다. 주변을 살피더니 곧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한다. 이 때 희미한 불빛 하나가 비치더니
새로운 도둑 (나)가 등장한다. (가)와 (나)의 만남. 고급 의상실에 돈을 찾아 들어온 두명의 도둑은 곧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미 별을 수도 없이 단 베테랑 도둑 (가)와 스타를 꿈꾸는
도둑 초년생 (나).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정당한 대우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회고위층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한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자유함을 느낀다. 마네킨들과
어우러져 걸판 지게 놀아보는 도둑들. 하지만 곧 경비가 등장하고 이들의 한 밤중 향연은 막바지로
치닫기 시작한다.

* CAST



김성은(국문03) / 도둑(가) 역.
날씨야 니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웃사입나 술사먹지



원지은(불문03) / 도둑(나) 역.
이 열기로 나를 덮고 기억도 덮는다.



이고운(법학04) / 마녀인1 역.
“인형에게는 혼이 깃든다.”
-“쉿! 난 순진한 영혼이에요^^”



정한길(컴공04) / 마녀인2 역.
어리광은 창피해



김승태(정통04) / 경비 역.
B형.. 원손잡이.. 곱슬머리..
그러나 열정이 있다.

* STAFF



MAIN STAFF · 조명
이연훈 (정통04)



MAIN STAFF · 음향
한재진 (성악04)



무대감독
윤장한 (경제98)



무대장치
최연경 (정통98)



무대미술
김영길 (정통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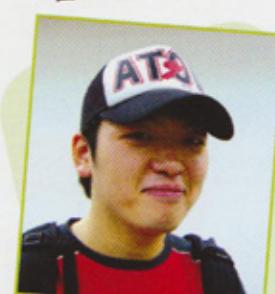
소품
김태욱 (경영98)



분장
김종백 (경제99)



의상
이미나 (국제01)



안무
윤대현 (전기03)



스폰
배상진 (행정03)



진행
박지승 (평교03)



진행
도현민 (경통04)

*기획의 변



기획
김성은 (국문03)

"네레우스라면, 프로테우스처럼 둔갑에 능한 그 바다의 베금 신이 아닌가요?"
“네레우스신이 동산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을 방법은 도망치는 길뿐입니다.
헤라클레스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불잡되, 그분이 가리는 것보다 드러내는
쪽이 수월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불잡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이와
같고, 영광에 이르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헤라클레스가 11번째 과업을 이루기 위해 요정에게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으로
가는 길을 묻는다. (네레우스는 헤스페리데스 동산에 사과나무가 심겨진 것을
본 댓가로 그 동산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영원히 도망하여야 한다.) 진리나 영광은
모습을 바꾸며 영원히 도망한다. 매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었다. 요정들은 다만 도망치는 진리나 영광을 불잡고 놓지 않기를
충고한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둔갑 비슷하게라도 하려고 하지만, 연극은 그 자체로
둔갑을 한다. 나에게는 가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프로에게 그것은
목적이며, 관객에게는 발칙한 상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둔갑에 능한 것을 겁도

없이 2년 동안 힘껏 불잡고 있었다. 그 2년은 내 그림자도 나를 비껴가도록 고집스럽기도 했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결국 그는 열 한 번째 과업을 이루고 열 두 번째 과업까지 무사히 이루어 올림푸스에 오른다. 내가 꼭 헤라클레스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봄" ..Aning 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연인" 이강백 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 作	전경호	안홍순
4	1981년 3.30, 31	"셋" 이강백 作	한철	정재호
5	1982년 3.24, 25	"ARIA DA CAPO" E.S.V.Millay 作	이영환	오세환
6	1983년 4.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 作	최시영	이용섭
7	1984년 3.8, 9	"블랙 코미디" 피터 쉐퍼 作	전희식	홍여석
8	1985년 7.20	"개인의 소공간" N.Horald 作	차세훈	김인보
9	1986년 3.17, 18, 19	"ARIA DA CAPO" E.S.V.Millay 作	이영민	하승민
10	1987년 3.12, 13, 14	"인형의 집" 헨리 입센 作	이길영	김정은 워성신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샤르트르 作	백운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作	천승범	황금실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3	1989년 3.23, 24, 25	"죽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 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b 作	이영민	박혜숙 백로라
15	1991년 3.7, 8, 9	"노크 노크" 줄스 파이퍼 作	정현웅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 먹고 둘 마시고" 이근실 作	김상겸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예두사" George Kaiser 作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아린 왕자" 솅맥위버리 作	이영상	홍석환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백 作	양명호	정석웅
20	1996년 5.30, 31, 6.1	"율리아 뱃고동이" 설준기 作	정재호	김영근
21	1997년 5.29, 30, 31	"로플루스대제" F.위렌마트 作	박정근	정식웅
22	1998년 6.5, 6, 7	"걸촌(아풀로)" 이강백 作	강길호	류민주
23	1999년 6.3, 4, 5	"자매", "리투아니아" 홍신택 作	권내리	
24	2000년 11.16, 17, 18	"도덕적 도둑" Dario Fo 作	김명진	강길호
25	2002년 5.30, 31, 6.1	"노부인의 방문" F.위렌마트 作	강혜정	서정우
26	2003년 5.29, 30, 31	"메시드리벌" 장진 作	김종백	한주영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3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골레스키 作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5,6	"EQUES" 피터 쉐퍼 作	해성우	하승민
35	1986년 9/11,12,13	"크랩소" E. 이오네스코 作	안상호	송기범
36	1987년 6/3,4,5	"한 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e 作	권행진	오경열
37	1987년 9/10,11,12	"오늘" A. 캐리 作	오경열	박경근
38	1988년 6/2,3,4	"세 밤을 걸게 세 번은 걸게" 이종렬 作	이종렬	오경열
39	1988년 10/6,7,8	"안내님? 못내님? by Dario Fo 作	임태주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놀내" 원종별 作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오경열	이반
42	1990년 5/24, 25, 26	"안타고네" 찰.아노이 作	원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31, 9/1	"한국연대기" 황석현 作	천승범	이경민
44	1991년 9/5, 6, 7	"생일 파티" H. 펜터 作	남재우	권승해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作	양현준	권행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들을 불렀다" 김상철 作	임경희	정현우
47	1992년 9/17, 18, 19	"급관의 예수" 김지현 作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월즈엔드 죽음" by A. Miller 作	황영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택시" 김상수 作	소장호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 악당" 닐 사이먼 作	정복용	소장호
51	1994년 9/29, 30, 10/1	"안타고네" 스포클래스 作	소장호	박원상
52	1995년 5/25, 26, 27	"살자속의 여자" 김은미 作	현승범	류성환
53	1995년 11/26, 27, 28	"나의 경원 오전지 나무" JM. 밴스온슬로스 作	김은상	남재우
54	1996년 3/7, 8, 9	"자살" 김현국 作	한석준	송미경
55	1996년 9/5, 6, 7	"목양이라는 이름의 전자" 태네시williamTM 作	조경희	이충희
56	1997년 3/13, 14, 15	"우리 몸내" 숀 와일더 作	신아영	서수경
57	1997년 10/8, 9, 16, 17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임세희	정현희
58	1998년 3/18, 19, 20	"살한 놀이" by E. 이오네스코 作	조태희	권내리 이경미
59	1998년 11/26, 27, 28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죽어야합니다" 이정원 作	황경진	조태희
60	1999년 3/11, 12, 13	"세상 낙기" 이정원 作	이정원	
61	2000년 9/2, 3, 4	"아름다운 사연" 장진 作	이정원	이경희
62	2000년 5/4, 5, 6	"소녀기" 황승현 作	김기현	박정근
63	2001년 8/31, 9/1, 2	"시경률" 이정원 作	이정원	
64	2001년 3/29, 30, 31	"한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作	이정원	서정훈
65	2001년 9/6, 7, 8	"번리보다 달아가다" 김희진 作	서정우	김희진
66	2002년 3/13, 14, 15	"풀은 브로드웨이 술집" 곽태 作	김명진	김명진
67	2003년 5/6, 7, 8	"여수동에 서면 알구정통이 보인다" 김희진 作	이미나	윤성환
68	2003년 9/4, 5, 6	"고咄을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배커트 作	김성민	최연경
69	2004년 6/3, 4, 5	"문화제" 아란스토 파네스 作	김성민	김희진

* 연습일지

2005.1.17 오늘은 캐스트들끼리 부분연습을 했다. 내가 문제다! 부끄러움증이 재발해서 몹시 곤란하다. 캐릭터가 좀더 확실해야겠군.

2005.1.19 우리의 마술가게는 잘 열리고 번성하는 중이다. 날이갈수록 연극은 새롭고 이나영의 표정은 자유로워진다.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했던 배역이 연습과 함께 뿌옇게될 때. 문제는 자신감이었다. 자꾸만 오그라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한번 연습한다. 또다른 이나영이 되어.

2005.1.20 극장이 없어진 아래로 우리의 연극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소극장이라니! 기획님의 한마디 '차라리 집 짓는게 낫다고 할지도 몰라' 너무설레여서 그저 좋다고 했다. 그렇지만 역시.. 생각보다 힘든 작업에 연출님 고민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소극장에서 우리는 마술가게를 연기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손수 만든 소극장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연습하겠지. 아.설렌다. 내가슴이 콩닥콩닥.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다.♡

2005.1.24 지난주에 이어 셋팅을 했다. 왕고님이 오셔서 연출님의 계획이 조금 변경됐다. 연출님의 이론에는 다소 허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불끄면 잘 모른다. 오늘은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감사합니다 기획님. 하지만 기획님은 천육백원을 주시며 사이다와 우유와 소주 한병을 주문 하셨다. 내 전재산 천오백원을 보태어 사이다와 소주를 샀는데 기획님이 우유는? 하셨다. 먼지가 많은가 보다. 목이 이상하게 칼칼하네

2005.1.29 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임에 틀림없나보다. 역시나 사람이 많아지니 즐겁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너무도 반갑다. 현재의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서 돌이켜 볼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선배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의 시간을 반추하며 살아가는 것이 낙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친구여,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추억의 페이지에 각인 시킬 그 웃음을 좀더 오래 간직해다오.

2005.1.31 디어가 문제 생겼다. 지자스.

2005.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2.15 직렬과 병렬의 이해에는 나의 꼬마전구 이론이 한몫 했다. '라고 나만 생각한다.' 200원짜리 유리퓨즈 5개의 영수증은 나의 세뱃돈이 한몫 했다. '라고 여기에 고백하면 기획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리라. 삼천원만 됐어도 뺏뺏한 만원짜리가 흐물한 천원짜리 되는 아픔을 토하듯 말했을 테지. 3월은 백만년 남은 것 같이만 느꼈었는데 곧 개강이고 공연이다.

2005.2.21 라면이 떨어졌다. 석유도 떨어졌다. 기름膏이 마르-ㄹ枯고. 공연중엔 코에서 회충이 나오지 말길 바란다.